

##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15만 톤의 쌀을 17개국에 원조

- 지난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11개국에 10만 톤 지원
- 올해 중남미까지 확대하여 17개국 대상 15만 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17개국의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총 818만 명 대상으로 15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심각해진 국제 식량 위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으며,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과 함께 매년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해 왔다. 2024년에는 식량원조 규모를 10만 톤으로 확대하여 아프리카와 중동 등 11개국의 767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15만 톤으로 확대하여 총 818만 명에게 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우리 쌀에 대한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국으로 아프리카 9개국(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아시아 4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타지키스탄), 중동 3개국(레바논, 예멘, 시리아), 중남미 1개국(쿠바) 등 총 17개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수교를 맺은 쿠바를 지원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우리 쌀 지원이 중남미까지 확장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이 지원되는 만큼 수원국의 식량 사정과 국내 물류 여건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된다. 총 4개 항구(울산, 군산, 목포, 부산)를 통해 4월과 10월경에 출항되어 2025년 7월부터 수혜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그간 전쟁, 코로나19(COVID-19) 등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쌀은 매년 7월 현지에 도착하여 수혜자들의 신뢰도 및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2024년 유엔세계식량기구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수혜자의 90% 이상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는 등 한국 쌀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다.

기후변화, 내전 등으로 인해 식량 위기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에 발표한 국제농업협력 5개년 로드맵(2025~2029)에 따라 케이(K)-라이스벨트, 스마트팜 등 대표 농업 브랜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 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하고 전문 지원기관\*도 지정하여 운영한다.

\* 한국농어촌공사(총괄·기획),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정보화·교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성과·평가)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어느덧 8년 차를 맞이한 식량원조 사업은 과거 유엔세계식량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우리가 선진국으로 격상되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세계 식량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식량원조 사업의 대상 국가와 지원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사업 개요
- 2. 지원 실적 및 2025년 계획
- 3. 2025년 식량원조계획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실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책임자	팀 장	이상준 (044-201-2011)
		담당자	사무관	김규안 (044-201-2017)



**붙임 1**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을 계기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위기국에 '18년부터 매년 쌀 원조

\* FAC(Food Assistance Convention): 대외경제장관회의('17.3), 국제개발협력위원회('17.6), 국무회의 ('17.8), 국회심의('17.12) 등의 절차를 거쳐 1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사업 개요**

- 사업명: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
  - \* 긴급 식량원조 협정(Arrang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orld Food Programme on Emergency Food Assistance)에 기반
- 사업비: ('24) 1,120억원(10만톤) → ('25) 1,901억원(15만톤)
- 사업대상국: '18~'20년 4개국, '21년 6개국, '22년 5개국, '23년 6개국, '24년 11개국, '25년 17개국
- 사업내용: 사업대상국에 대한 쌀 원조
  - WFP에 정부가 분담금을 송금하면, WFP가 정부관리양곡을 구매하여 수원국으로 운송·배급·보관·모니터링 등 실시
- 사업 성과 : 지난 7년간 연간 3~8백만명의 식량위기 인구 지원
  - 우리 쌀은 품질이 높고, 조리가 쉬워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난민·취약계층·학교급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 한국 원조 쌀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 90% 이상 (WFP, '24.10월)
  - COVID-19, 러-우 전쟁 등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지원 계획에 따라 매년 7월 현지에 적시 도착하여 식량위기 완화에 현저히 기여
- 향후 계획: 사업 효율성 제고, 점진적 물량확대 등 추진

**붙임 2**

**지원 실적 및 2025년 계획**

( '18~'24년 지원실적 )

단위: 톤

수원국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케 나	13,000	10,000	10,000	9,500	11,000	11,000	21,000
에티오피아	15,000	16,000	16,000	13,680	13,000	13,000	13,582
우간다	5,000	5,000	5,000	4,500	6,000	2,492	3,000
예 멘	17,000	19,000	19,000	18,000	18,686	18,000	18,000
시리아	-	-	-	3,000	-	3,006	-
라오스	-	-	-	1,320	1,314	-	-
아프가니스탄	-	-	-	-	-	2,502	4,896
모리타니	-	-	-	-	-	-	6,720
기니비사우	-	-	-	-	-	-	2,400
시에라리온	-	-	-	-	-	-	2,400
모잠비크	-	-	-	-	-	-	3,000
마다가스카르	-	-	-	-	-	-	10,002
방글라데시	-	-	-	-	-	-	15,000
<b>합 계</b>	<b>50,000</b>	<b>50,000</b>	<b>50,000</b>	<b>50,000</b>	<b>50,000</b>	<b>50,000</b>	<b>100,000</b>

( 2025년 식량원조 계획 )

지원국		지원규모 (톤)	수혜인원 (만명)
아프리카 (9개국)	케 나	23,268	62
	에티오피아	12,000	56
	우간다	2,544	31
	기니비사우	1,800	20
	모리타니	13,020	21
	시에라리온	1,800	10
	모잠비크	2,328	48
	마다가스카르	9,984	42
	나미비아	4,896	14
중 동 (3개국)	예 멘	23,424	249
	레바논	864	25
	시리아	2,400	25
아시아 (4개국)	방글라데시	20,064	97
	아프가니스탄	4,032	3
	필리핀	2,016	22
	타지키스탄	960	43
중남미 (1개국)	쿠 바	24,600	50
<b>합 계</b>		<b>150,000</b>	<b>818</b>

